



WCP 2008 Proceedings
Vol.50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핵심역량 개발과 마음의 계발

Chong-ja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jlee@snu.ac.kr

Kyung-oh Song

BK 21 Post-do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5song@snu.ac.kr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enlighten human mind than to develop key competencies in terms of human development. For this, the current study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OECD's functional approach to competency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key competencies identified by OECD researchers. Then, it explores the structure of human mind, draw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East Asian philosophical traditions that has studied the theme of human being or mind. Whe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human mind which uses the perspective of the Doctrine of the Mean, this study found that key competencies that a human being should have are basically produced through the operation of human mind. Also, human mind in the Doctrine of the Mean is 'transformed being' from ego-centered to virtue center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human development. First, given the nature of the human mind and the important role it plays in human life, the primary focus of education should be placed on enlightening the mind of human beings.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at school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uld not only provide

knowledge and techniques that are needed in a modern society, but also make an effort to enlighten human mind.

I. 머리말

1997년 1월에 개최된 OECD 국제 심포지움(Rychen & Slganik, 2001)에서 미래사회 진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 길러져야 할지 교육,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을 660 여개로 나열하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들을 간추리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후 OECD는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3년에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아홉가지로 규정하였다.

OECD에서 규명한 핵심역량의 개념 및 요소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수준의 능력지표를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의 핵심역량 요소들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설계에 착수하였다(소경희, 2006). 또한 유럽연합(EU)은 OECD의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 기초에 바탕을 두고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8대 핵심역량을 선포한 바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2002, 2003, 2004)이 OECD의 핵심역량 개념을 생애능력이라고 번역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생애능력들을 탐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가 OECD의 핵심역량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의사소통력, 사회성, 예술적 감성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OECD 에서 규명한 핵심역량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능력지표 설계와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기본적인 구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들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이 개인의 정체성 확립, 타인 및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상징적 도구에 대한 활용이라는 세 영역에서 각각 세 가지씩의 핵심역량들을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핵심역량들은 *reflectivity* 라는 핵심역량의 내적 정신 구조(*internal mental structure*)를 토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OECD 핵심역량 논의에서는 이러한 *reflectivity* 의 의미가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reflectivity* 는 핵심역량들이 환류하는 메카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자기 조절이 가능한 복잡한 정신적 작용(*self-authoring order of mental complexity*)(Kegan, 2001)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reflectivity* 는 반성적(反省的) 사고를 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OECD 연구에서 *reflectivity* 는 핵심역량의 내적 정신 기반이라는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기능들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Reflectivity*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은 결국 핵심역량들과 *reflectivity*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reflectivity* 의 의미와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OECD 핵심역량의 개념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OECD 에서 규명한 핵심역량은 개념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연구문제 2. OECD 의 핵심역량 논의에서 ‘*reflectivity*’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만약 우리가 OECD 에서 제시한 reflectivity 를 인간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특히 ‘반성적(反省的)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지칭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지향(志向)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핵심역량개발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 개발을 통해 인간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새로운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OECD 에서 언급한 ‘reflectivity’를 ‘반성적 마음’으로 보았을 때,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지향(指向)은 무엇인가?

마음 구조를 파악하는데 서양의 심리학(心理學)과 동양의 유학(儒學)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마음의 본질과 그 쓰임, 그리고 마음의 형성에 관해 많은 업적을 이루어온 중용(中庸)의 관점을 통해 인간이 개발해야 하는 마음의 구조를 예시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OECD 핵심역량의 개념구조 분석

1. 핵심역량 논의의 전개과정

1980 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한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던 개인의 능력과는 현저하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였다. 현대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의 기초 능력을 넘어선 문제 해결력(problem solving ability)이나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ability)과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들이 요구되었다(Canto-Sperber & Dupuy, 2001).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새로운 능력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능력들을 규명하려는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미국의 노동부가 SCANS(Secretary of Labor'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1991, 1992)를 통해 성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원활용능력(resources),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정보처리능력(information), 사회적, 기술적 체제를 관리하는 능력(systems), 그리고 기술 활용 능력(technology)을 탐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핵심능력들을 규명하려는 작업들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OECD는 1987년부터 '국가 교육체제지표(Indicators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의 능력들을 지표화하고 측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성인의 문해력과 생애능력을 측정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한 ALL(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그리고 사회 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CCC(Cross-Curricular Competencies Project) 등이 수행되었다. OECD의 이러한 작업들은 인간의 능력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고 학생과 성인의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각 나라별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여 향후 경제성장을 전망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후 OECD는 1997년부터 3년에 걸쳐 ALL, PISA, CCC 등에서 다루어온 학생 및 성인 능력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추진하였다.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이 연구를 통해 OECD는 현대사회가 빈곤과 세계적인 불평등, 그리고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 복잡한 갈등과 분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및 복지 실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OECD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고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새로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이후 DeSeCo 연구는 인간능력에 대한 이론적 기초 하에 성공적인 삶과 사회 유지를 위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라 명명하고, 세 가지 범주에서 아홉 가지의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OECD 가 정의한 핵심역량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에까지 폭넓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맥락의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심역량은 단순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2).

OECD 에서 합의한 핵심역량의 개념 및 요소들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수준의 능력지표를 개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OECD 의 핵심역량 요소들에 기반 하여 각 국가별 맥락에서 필요한 핵심역량 혹은 핵심기능으로 재개념화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교육과정 설계에 착수하였다(소경희, 2006).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애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3년 동안 21 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애능력을 규정하고,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체제들을 탐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가 OECD 의 핵심역량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의사소통력, 사회성, 예술적 감성 등과 같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OECD 가 규명한 핵심역량의 개념과 요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능력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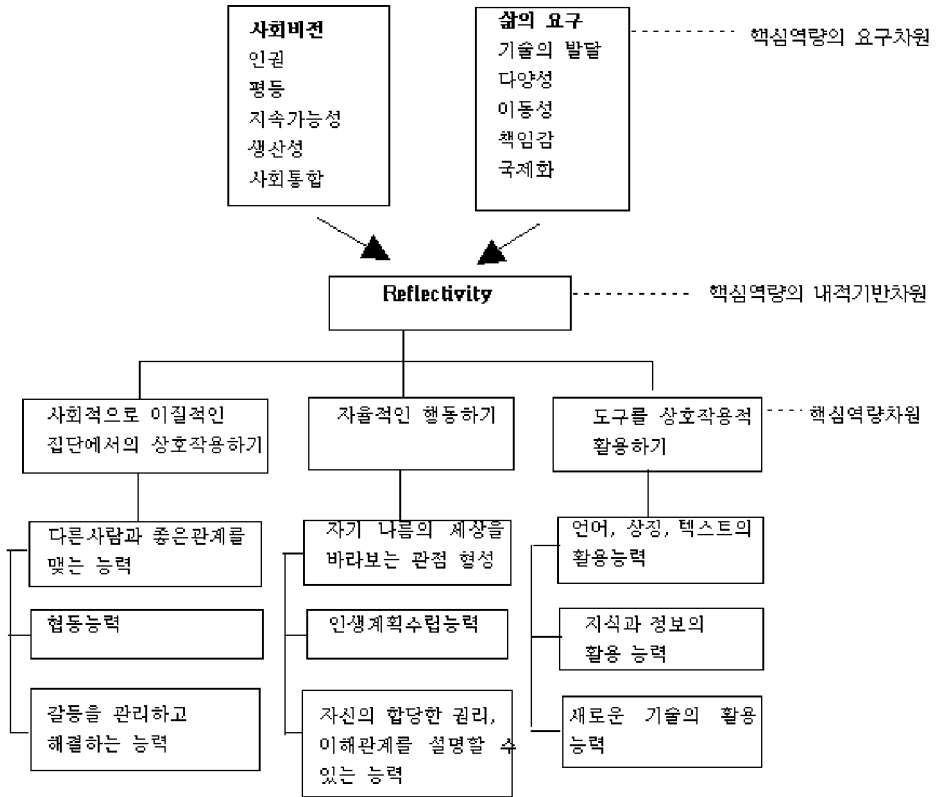
2. OECD 핵심역량의 개념적 구조

OECD 가 규정한 핵심역량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OECD 가 언급한 ‘역량’ 혹은 ‘핵심역량’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맥락에서, ‘역량 (competence)’ 이란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3).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습관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정서나 신념, 가치체계 및 태도까지 포함한다(Rychen & Salganik, 2003). 이러한 의미에 본다면, 역량은 수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능력과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의 중요한 능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감정적이며, 동기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

OECD 의 DeSeCo 연구에서는 역량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Rychen & Salganik, 2001). 따라서 역량은 본래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인지능력들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역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이다. 역량은 전이(transfer)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서의 요구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획득된 역량 그 자체가 새로운 상황에서의 요구를 수행하는데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요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획득된 역량의 요소들(기술, 인지능력 등)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전환되어 발휘된다. 따라서 일단 역량을 갖추게 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요약하자면, OECD 에서 제시한 역량이란 삶의 장면에서 필요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을 통해 삶이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란 매우 복잡하여 직업세계나 사회생활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의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능력들이 요구된다. OECD 는 수많은 역량 중에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역량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라고 명명한다. 핵심역량은 개인의 삶 (예컨대 건강이나 보다 나은 양육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요구(정치, 경제, 사회, 인간관계 등)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OECD 가 제시한 핵심역량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의 구조를 핵심역량의 요구차원, 핵심역량의 내적기반차원, 그리고 핵심역량차원으로 나누어 <그림 1>과 같이 살펴보았다.



<그림 1> OECD 핵심역량의 개념적 구조

핵심역량의 요구차원에서, 핵심역량은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개인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규정된다(Rychen & Salganik, 2003). OECD 에 따르면, 핵심역량을 요구하는 사회적 비전은 인권에 대한 존중(human rights), 평등(equality), 지속적인 성장가능성(sustainability),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사회통합(social cohesion)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심역량을 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삶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성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하며, 끝없는 이동에 대비해야 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책무성을 발휘하고 세계 속에서 일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OECD 의

핵심역량 규정은 인간 됨됨이와 같은 내면적인 측면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회적 비전과 개인 삶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핵심역량의 내적기반차원은 핵심역량의 선결조건으로서 *reflectivity* 를 의미한다. 핵심역량은 *reflectivity* 라고 하는 내적 정신 구조(*internal mental structure*)를 통해 발휘된다(Rychen & Salganik, 2003).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핵심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reflectivity* 라는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고차원적인 정신능력(Kegan, 2001)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정신능력은 개인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엮매이지 않고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배울 수 있게 하는 비판적인 견지와 삶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Perrenoud, 2001). OECD 맥락에서 *reflectivity* 는 핵심역량들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reflectivity* 라고 하는 심리적 능력을 인간 내면에 전제조건으로 갖추고 있을 때, 인간이 발휘하는 핵심역량들은 비로소 비판적 관점을 갖춘 수행능력이 될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은 *reflectivity* 를 통해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상황을 적절히 알아 도구를 제때에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OECD 는 핵심역량들이 *reflectivity* 라는 내적 정신구조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개별적인 핵심역량의 리스트만을 열거한 이전의 논의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내적 구조로서 *reflectivity* 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reflectivity*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은 결국 핵심역량들과 핵심역량의 내적 정신구조로서 *reflectivity*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끝으로 핵심역량차원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reflectivity* 를 통해 작동하는 능력들을 나타낸다. 핵심역량차원에서, OECD 는 모든 개인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세 범주에서 각각 세 개씩의 핵심역량을 제안한다. 첫 번째 범주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OECD 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서 무엇보다도 타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능력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범주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끌고 가는 영역이다. OECD 는 우선 자기 나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관점 형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생애에 걸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합당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세 번째 범주는 상징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이다. OECD 는 다양한 언어, 상징, 담론, 논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지식 및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여기서 언급한 기술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학습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술들의 목적과 기능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잠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OECD 가 강조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지식과 기술 자체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습득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효과까지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역량의 개념적 구조를 통해 OECD 가 제안한 핵심역량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OECD 는 무엇이 핵심역량을 규정하는가라는 역량 의 근거로서 외부의 요구를 중요시한다. 예컨대, 인류가 견지해야 할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장, 사회적 통합, 평등, 환경 보존 등의 사회적 비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이 도출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 예컨대 고용, 타인과의 관계 형성, 다양한 기술의 습득, 정치 참여 등이 핵심역량을 규정하는데 고려된다. 이렇게 본다면, OECD 의 핵심역량 규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요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외부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역량의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역량규명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인간능력개발에 있어 ‘어떠한 됴됨이를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OECD 는 핵심역량을 우리 삶의 맥락 속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핵심역량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와 관련한 성공적인 수행이나 효과적인 행위 측면에서 규정되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능력보다는 삶의 장면에서 유용한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OECD 는 핵심역량이 요구 지향적(demand-oriented)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손민호(2006)는 역량의 이러한 성격을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맥락과 맞물려 사용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상황을 파악하고, 의미를 읽어내며, 이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역량인 것이다.

셋째, OECD 의 핵심역량들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식을 나름대로 구성해 가는 앎의 과정(know-how)에 대해 주목하였다. 정체성 확립, 타인과의 관계 설정, 지적(知的)능력 강조라는 세 차원의 역량들은 모두 단순히 무엇을 할 줄 아는 지식과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적(知的)인 능력은

지식의 암기만이 아니라 지식의 구성주의 학습관에 입각하여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반성적 자세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OECD 가 제시한 핵심역량들이 단순히 앎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앎의 과정차원까지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능력들이 발휘하는 과정과 기능을 reflectivity 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능력들은 타인과 잘 지내고,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reflectivity 작용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을 하며, 상황을 적절히 알아 도구를 제때에 잘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OECD 가 언급한 reflectivity 는 인간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특히 ‘반성적(反省的)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내면에 반성적 마음을 가졌기에 단순히 앎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OECD 의 핵심역량 논의에서 언급된 reflectivity 가 어떤 마음, 특히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으로 간주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의 DeSeCo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능력의 개발에 대한 OECD 의 접근이 외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인간 쓰임(doing)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의 내면적 존재(being)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인간능력 개발에 있어 인간의 내면적 존재인 마음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고, 오랫동안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 능력 개발에 있어 인간의 내적 존재인 마음에 대한 고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핵심역량개발과 더불어 마음의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II. 핵심역량개발에 있어 마음개발의 중요성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OECD 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아홉 가지 핵심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바꿔 말하면, OECD 가 규정한 아홉 가지의 핵심역량들을 갖추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소위 역량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량 있는 사람이란 아홉 가지 핵심역량을 위해 제공되는 학습의 성과인 셈이다. 즉, 도구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에다가 자율적 능력을 위한 학습, 그리고 협동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 등 핵심능력 각각에 필요한 개별적인 학습을 온전히 수행하고 나면 역량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능력 개발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들을 하나씩 더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홍우(2000b)는 개별 수행능력에 또 다른 수행능력을 하나씩 덧붙여 가는 전략을 인간능력개발의 더하기 전략 혹은 가법적(加法的) 접근이라 부른다. 가법적 접근에서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란 핵심역량 아홉 가지를 위한 각각의 학습을 하면서 수행능력들을 하나씩 '개발(development)'해가는 과정이다. 예컨대, OECD 의 아홉 가지 핵심역량들 중 '협동능력'을 개발하고 난 후 '갈등관리능력'을 개발하고, 이후 '정보 활용 능력'을 차례로 개발하는 식이다.

그런데 역량을 갖춘 사람이 개별적인 능력들을 차례로 개발하는 가법적인 접근을 통해 길러지기란 사실상 어렵다. OECD 가 규정한 아홉 가지 핵심역량들이 비록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상 한 인간의 내면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홍우, 2000b). 예컨대, OECD 가 언급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능력'이나 '협동능력', '갈등관리능력' 들은

서로의 다른 면을 나타내는 것일 뿐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능력이다. 협동능력을 갖춘 사람이 갈등관리능력은 부족하여 이 능력을 위한 학습을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갈등관리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홉 가지의 핵심역량들은 서로 별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갖춘 사람의 내면에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의 역량이 다른 역량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핵심역량들 간의 관계를 이흥우(2000b)는 인간능력개발의 ‘승법적(乘法的) 접근’이라고 명명하였다.

인간 능력개발의 승법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개별적인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총체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양태들은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핵심부의 원초적 발달이 점점 뚜렷한 형태를 갖추면서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2000b). 여기서 인간 내면의 핵심부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발휘하는 역량이란 마음이라는 핵심부의 자연적인 발로(發露)로서 마음에서 출발하여 감정과 의지, 개별능력들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이란 아홉 가지 역량들을 차례로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핵심부인 마음이 순수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연적으로 법도에 맞고, 모든 영역에서의 역량들이 함께 생성되고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흥우(2000b)는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누구나, 비록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소간은 전인이며, 현재 사실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이든지, 비록 전인교육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소간은 전인교육이다(p.21)”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능력을 기르는 일은 인간 내면의 핵심부인 마음을 기르고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와 함께 여러

수행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좋은 뿌리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순수하게 잘 다듬어진 인간존재의 ‘마음’이라는 뿌리를 통해 핵심 역량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단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역량들을 하나씩 습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선적으로 깨우치는 일, 즉 마음의 계발(enlightenment)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마음 계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잡는다면 다른 과제수행능력들도 실타래 풀듯이 잘 연결되어 적재적소에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잘 세움으로써 모든 핵심역량들을 잘 갖출 수 있게 되는 인간능력 개발에 있어 일이관지(一以貫之)¹⁾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능력 개발에 있어 마음 계발의 중요성은 동서양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홍우는 마음 계발의 중요성을 동양사상에 빚대어 제시하였는데, 특히 ‘마음의 신비 교육의 신비(2000a)’라는 글에 마음을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 이홍우는 인간의 마음을 심외유물(心外有物)과 심외무물(心外無物)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마음으로 구분한다. 심외유물(心外有物)이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사물이 있다는 뜻으로, 나와 대상을 구별하는 닫힌 마음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 현상세계의 사물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심외무물(心外無物)이란 인간 마음의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열린 마음을 뜻한다. 인간의 열린 마음은 남과 대상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는 바깥 현상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심외무물(心外無物)의 마음 상태는 현상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언어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상태이다. 말이 아닌 오직 깨우침으로써만 알 수 있는 마음 상태인 것이다. 이홍우(2000a)는 이러한 두 종류의 마음이 상·하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외유물(心外有物)의 마음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일, 즉 교육은 상·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 마음간의 벽을 뚫어내어 심외무물(心外無物)의 마음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단절된 형이상학적인 마음과 형이하학적인 마음간의 뚫림을 통해 인간은 어느 특정한 능력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음의 형성을 통해 모든 능력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全人)이 될 수 있다.

이홍우(2000a)는 또한 성경 창세기 편의 예를 통해 인간 능력의 개발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의 창세기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이홍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선악과를 먹기 전(前)과 후(後)의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실 때 어떤 마음에서 쫓아내신 것인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낸 것인지, 살리기 위해서 쫓아 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홍우 교수는 이 예화에서 실낙원(失樂園) -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란 마음과 마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상태인 심외무물(心外無物)의 마음 상태에서 마음과 마음 사이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는 심외유물(心外有物)의 마음 상태로 바뀐 것으로 해석한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어 버려, 자기 자신이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자아형성이란 흔히,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성된 자아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자아실현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못한 자아가 형성되어 버린다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현상세계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일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홍우(2000a)는 글의 말미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 즉 인간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짝 찬 마음인 심외무물(心外無物)로 되돌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심외무물(心外無物)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救援)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마음 계발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다.

서양에서도 인간의 삶에 있어 마음 계발의 중요성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저명한 철학자인 Buber (1970, 표재명 역: 1990)는 인간 삶의 목적이 나뉘어진 두 마음의 복원에 있음을 강조한다. Buber 는 그의 저서 'I and Thou'(1970)에서 인간의 마음을 '나와 너의 세계'와 '나와 그것의 세계'로 구분한다. '나와 너의 세계'는 나와 절대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세계, 즉 심외무물(心外無物)의 마음 상태이다. 반면 '나와 그것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 즉 사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심외유물(心外有物)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Buber (1970, 표재명 역:1990)는 인간이 '나와 그것의 세계'를 벗어나 '나와 너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와 너의 세계'로 마음을 돌릴 때 인간은 본래 마음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현상 세계의 물질을 탐하여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에 빼앗겼던 마음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에 있다. 마음 밖에 사물을 두지 않고 온전히 짝 찬 마음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²⁾.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 있어 마음 계발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다.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또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은 일을 수행하는데 신비롭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홍우, 2000a).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마음이란 단순히 인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삶을 창조하는 주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 참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재창조해 가는 힘을 얻게 된다(황금중, 2005).

마음의 위상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능력개발에 있어 OECD의 접근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지나친 기능론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 어떠한 됴됨이를 지닌 인간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OECD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외부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수행능력들을 차례로 ‘개발(development)’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비록 OECD의 DeSeCo 프로젝트가 핵심역량의 내적 정신구조로서 reflectivity의 작용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인간 내면적 존재인 ‘마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reflectivity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핵심역량 개발이 낱알의 수행능력들의 집적(集積)으로 가능하다는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인간의 존재에 주안점을 두고 마음을 기르고 돌보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와 함께 여러 수행능력들을 키우는 ‘전인적 접근’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인간의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계발이 시급하다.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 역량을 쌓는 교육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핵심역량 또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황금중(2005)은 마음의 중요한 위치를 감안하여 “마음교육은 여타 교과교육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육 위의 교육’, 혹은 ‘모든 교육 저변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p.26)”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음계발을 위한 교육실천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현상세계에 빼앗겨 버린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만한 전인(全人)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IV. 중용(中庸)을 통해 본 마음의 구조

핵심역량개발에 있어 마음 개발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렇듯 중요하다면, 핵심역량 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모든 인간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홍우, 2000a)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에서 언급한 reflectivity 를 반성적(反省的) 사고를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지향(志向)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핵심역량개발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인간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새로운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음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동서양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서양의 심리학(心理學)은 그 본래 의미상 마음(心)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인간 행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반면에 동양사상은 마음에 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본질과 마음을 기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용(中庸)은 마음의 본질과 그 쓰임, 그리고 마음의 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음에 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주희, 정미영 역, 1999). 중용(中庸)을 통해 마음 구조를 본다면, 인간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고, 이상적인 인간 존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용(中庸)을 통해 인간이 개발해야 하는 마음의 구조를 예시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중용(中庸)의 의미와 기본 개념

중용은 [논어]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天生德於予(하늘이 덕을 주셨다), 中庸之爲德(중용이 덕이 되었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이원목, 2005). 이후, 중용은 주희(朱熹)에 의해서 독립된 경전으로 재편찬 되어 군자(君子)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지침서, 즉 군자심학(君子心學)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용은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마음수양을 위한 학문으로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정약용은 군자의 마음속에 쌓은 도덕의 기준으로서 중용을 강조하였다(금장태, 2002).

다석 류영모(1994)는 중용(中庸)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쓰임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저서 ‘마음을 밝히는 지혜-중용에세이’에서 류영모(1994)는 중용을 ‘뚫린 마음’의 상태로 규정한다. 중용(中庸)을 한자로 보자면, ‘중(中)’은 가운데에 있는 마음을 위아래로 뚫은 것으로 내 마음이 위로 연결이 되고 아래로도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용(庸)이라는 것은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용(中庸)은 ‘뚫린 마음을 쓴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뚫리게 되면 덕(德)을 가지게 되는데 中庸之爲德(중용이 덕이 되었다)이 되면 인간 마음에 본래 없었던 덕(德)이 생겨 이를 알아듣고, 깨닫고, 더욱더 가지려하고, 덕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뚫린 마음 상태 이전에는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원한, 욕구, 원함이 인간의 생각과 행위들을 이끄는 동력이었으나, 마음이 뚫린 이후 중용의 마음 상태에서는 덕(德)으로 채워진 마음이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이끌게 된다. 중용의 뚫린 마음은 한번 뚫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줄곧 뚫려 있게 된다. 마음이 뚫려 있음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그곳에 덕(德)을 지닌 거듭난 존재(transformed being)가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류영모(1994)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용은 학문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뚫린 마음 쓰임인 것이다.

중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희(朱熹)에 의해서 재편찬된 중용은 33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 1 장은 중용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들을 압축하여 제시하였고, 나머지 장에서는 1 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용 제 1 장 첫 머리글은 다음과 같다.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이요 修道之謂教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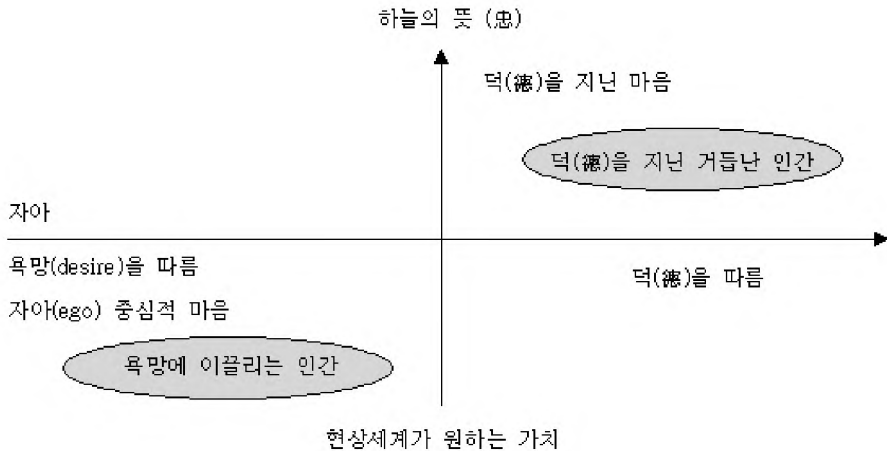
(天命을 일컬어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이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教라고 한다)

여기서 중용의 형이상학적인 핵심개념인 성(性), 도(道), 교(教)가 등장하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천명(天命)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 혹은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일컬어 성(性)이라 한다. 하늘의 뜻인 성(性)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도(道)인데 길을 의미한다. 도(道)는 마음의 나(我)가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좇아가는 것(率性)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갈 길이다. 이러한 길을 닦는 것이 바로 교(教)라 하여 이를 중용사상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자면, 중용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좇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 깨우침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류영모(1994)는 중용의 핵심개념을 우리 고유어인 ‘얼나’, ‘몸나’, ‘맘나’, ‘제나’의 용어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몸나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몸인 사람을 의미한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간 자신의 마음일 때 이를 맘나라 한다. 그리고 몸나와 맘나를 모두 합쳐 제나, 즉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를 의미한다. 반면에 인간의 자아가 아니라 얼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이게 되면 이걸 얼나라고 하여 제나와 구분된다. 중용의 핵심개념인 성(性), 도(道), 교(教)를 얼나, 몸나, 맘나, 제나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성(性)은 얼이라고 할 수 있다. 도(道)는 맘나가 얼나를 받드는 일이 된다. 그리고 교(教)는 인간의 몸나와 맘나인 제나를 누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중용의 마음 상태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을 좇던 몸나와 맘나의 삶을 누르고 얼나의 존재로 거듭나는 견성득도(見性得

道)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비록 현재에서 몸나와 맘나에 얽매여 살고 있지만, 덕(德)을 알아듣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일나의 존재로 변모해가기 위해서 중용지심(中庸之心)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용(中庸)을 인간의 마음 상태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용의 마음은 현상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좇는 마음상태이다. 이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의 자아중심적 마음이 아니라 덕(德)을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덕(德)을 지닌 거듭난 인간의 마음쓰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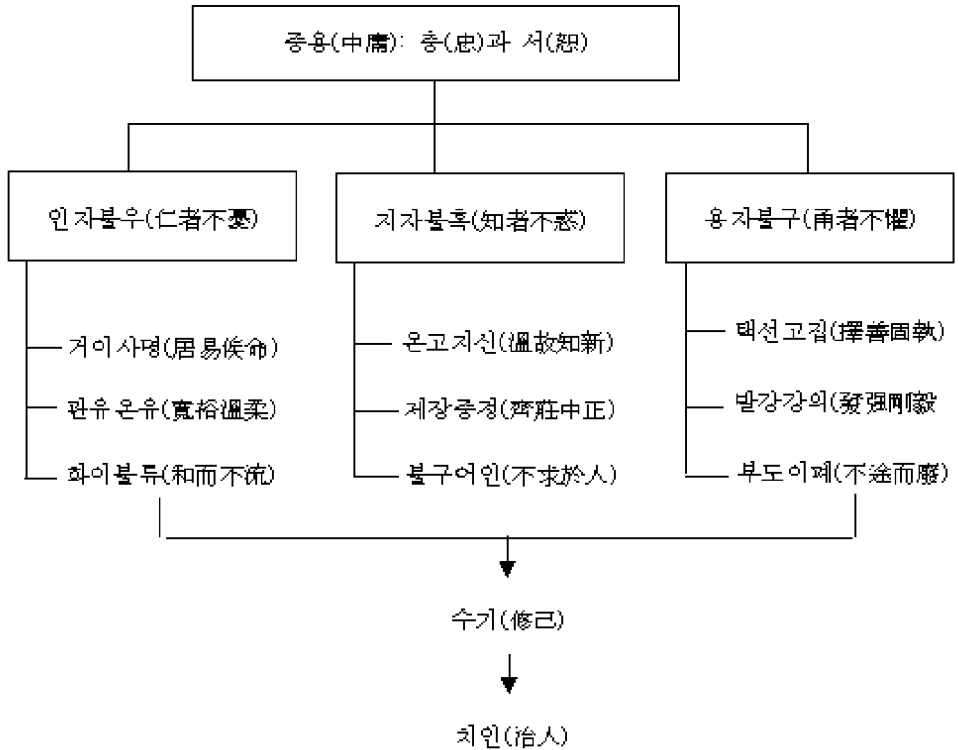


<그림 2> 마음 상태에 따른 인간 존재의 모습

2. 중용(中庸)을 통해 본 마음의 구조

본 연구는 핵심역량 개발에 있어 마음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과연 계발해야 할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오랫동안 마음에 관해 탐구해온 중용(中庸)의 관점을 통해 예시적으로 나타내보았다. 특히 중용을 마음의 상태로 파악한 다석 유영모 선생의 중용(中庸)에 대한 관점을 취하였다. 중용을 통해 본 인간의 마음 구조는 <그림 3>와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³⁾.

중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忠)과 서(恕)라는 두 종류의 마음을 지닌다. 충(忠)은 마음의 중심이 하늘로 뚫려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충(忠)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와 하늘과의 관계 맺음을 회복하는 복례(復禮)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서(恕)는 옆으로 뚫려있는 마음으로 자아에 묶여 있던 마음에서 벗어나 원래 있던 여(如)의 마음으로 돌아간 마음이다. 따라서 서(恕)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나를 이기는 것, 즉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주착과 집착으로부터 떠나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극기(克己)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인간이 충(忠)과 서(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제나에서 일어나 변모한다. 즉, 견물생심(見物生心)에서 견성득도(見性得道)로 옮겨가는 것이며, 어떤 사물이나 현상세계에 대한 가치에 있어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천명을 기다린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중용(中庸)을 통해 본 마음의 구조

충(忠)과 서(恕)라는 중용의 마음을 지닌 인간은 지(知), 인(仁), 용(勇)이라는 세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불우(仁者不憂), 지자불혹(知者不惑), 용자불구(勇者不懼)한 모습이다. 논어 헌문편에 인자불우(仁者不憂), 지자불혹(知者不惑), 용자불구(勇者不懼)한 인간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다. 우선, 인자불우(인자불우)에서 인(인)은 지금까지 주로 ‘너그럽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로만 생각해왔는데, 여기서는 인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절대에 대한 믿음과 의지라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知)는 흔히 많이 아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으나 여기서는 지를 갖춘 사람이 불혹(불혹), 즉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勇)은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勇)을 품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용의 마음가짐을 내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인자(仁者)로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자(知者)로서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용자(勇者)로서 품은 의지를 따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중용은 중용지심(中庸之心)이 인(仁), 지(知), 용(勇)으로 드러난 마음의 길에서 인간이 지향할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인자(仁者)는 거이사명(居易俟命)하니(중용 14 장) 관유온유(寬裕溫柔)하고(중용 31 장) 화이불류(和而不流)하니(중용 10 장) 불우(不憂)할 수 있게 된다. 즉, 인(仁)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하늘의 뜻에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여 맡기기 때문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관유온유(寬裕溫柔)해 지는데 이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며,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천명만 따를 뿐 다른데 휩쓸려 따로 떨어져나가지 않고 화합할 수 있고 너그러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자(知者)는 온고지신(溫故知新)(중용 27 장)하고 제장중정(齊莊中正)(중용 31 장)하여 불구어인(不求於人)(중용 14 장)하니 불혹(不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知)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뜻을 잘 살피어 늘 새롭게 함으로써 천명을 받들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므로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않고(上不怨天), 아래로는 사람에게 바라지 않게(下不尤人) 된다.

셋째, 용자(勇者)는 택선고집(擇善固執)하고(중용 20 장) 발강강의(發強剛毅)하며(중용 31 장) 부도이폐(不途而廢)(중용 11 장)하니 불구(不懼)할 수 있게 된다. 즉, 용(勇)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선(善)을 택하여 꼭 붙잡아두고, 이를 놓지 않고 굳세게 지켜

끝까지 선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 그 길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중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자불우(仁者不憂)하고 지자불혹(知者不惑)하며 용자불구(勇者不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修己)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섬기게(治人)된다.

요약하자면, 중용(中庸)을 통해 본 마음의 구조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뚫린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은 위와 옆으로 뚫려 있어 위로는 하늘과 관계맺음을 회복하고 옆으로는 남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게 된다. 이러한 마음은 하늘의 뜻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자아를 뛰어 넘어 인간 존재 위상이 거듭나(transformed being)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용(中庸)의 마음가짐을 내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인자(仁者)로서 걱정하지 아니하고(仁者不憂), 지자(知者)로서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며(知者不惑), 용자(勇者)로서 품은 의지를 따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勇者不懼)을 보이게 된다.

중용지심(中庸之心)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OECD 에서 제시한 아홉 가지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일단 인간의 존재가 맘나와 몸나를 중시하던 것에서 얼마나 승격하게 되어 얼마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 혹은 기술정보화사회로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 내면에 갖추고 있는 얼마나 마음 혹은 중용지심(中庸之心)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기반 하여 현대사회에 필요한 여러 역량들이 올바르게 도출되고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핵심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적인 역량들을 하나씩 습득해 가는 가법적인 접근에 힘쓰기 보다는 인간이 내면에 중용의 마음을 계발하여 지(知), 인(仁), 용(勇)의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다른

개별역량들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승법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OECD 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개념과 지표는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의 교육정책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OECD 의 DeSeCo 연구에서 규명한 핵심역량들을 토대로 각 국가수준의 능력들을 표준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OECD 의 핵심역량 논의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핵심역량 개발에 앞서 인간의 마음을 계발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OECD 의 논의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 의해 규명된 핵심역량들을 모두 갖추게 되면,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이끌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OECD 의 이러한 입장은 인간능력개발에 있어 외부 요구 달성을 위한 인간 쓰임에 관심을 둔 역량개발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내용은 핵심역량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임에 틀림이 없으나, 핵심역량의 밑바탕이 되는 인간의 존재(being)인 마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어떤 됴됨이를 지녀야 할 것인가’라는 인간 존재에 주안점을 둔 마음계발(mind enlightenment)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을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 핵심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존재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고, 핵심역량 논의 이전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구체적인 핵심역량에 앞서서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전인적이고 역량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OECD의 DeSeCo 연구가 제시한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인간 능력개발에 있어 동양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능력개발에 있어 개별 핵심역량에 대한 강조를 부각하는 OECD의 접근에 비해 마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계발을 통해 핵심역량들이 적재적소에 잘 발휘될 수 있게 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접근은 인간 능력 개발에 있어 한국적 접근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심리학적 차원에서 OECD의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일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규범적 측면에서 OECD의 핵심역량 개발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셋째, 본 연구는 인간 능력 개발의 주안점이 인간 쓰임에만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교육의 영역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인간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하 HRD)의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OECD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에 토대가 된 HRD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인간을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단순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인간능력개발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HRD 관점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의 목적이 외부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의 쓰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발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HRD의 접근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핵심역량개발과 마음의 계발은 독점적인 학교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학습양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의 모든 것은 대부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개인의 자발적인 학습조차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수행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학교의 독점적인 지위를 완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해 획득된 학업성취들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속에서 마음계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 품성교육이나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인문교육은 공교육의 지나친 지식위주의 학습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여러 기관들과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핵심역량뿐만 아니라 마음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간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가법적(加法的)인 접근보다는 승법적(乘法的)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능력개발은 개별 수행능력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을 별도로 존재하여 이를 학습하면 수행능력들이 하나씩 개발되어 가는 메카니즘을 취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개별수행능력들이 한 인간의 내면에서 서로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발하여 개별 수행능력들이 모두 한데 합쳐져 그 총체적 능력을 드러낸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핵심역량과 더불어 제대로 된 마음을 갖춘 전인(全人) 혹은 역량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개별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References

공자(著). 김형찬 역(2005). *논어*. 서울: 홍익출판사.

- 금장태 (2002). 중용의 체제와 도의 기본 구조- 다산과 오규소라이의 중용 해석. 동아문화 제 40 호.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2007. 8. 13.
- 류영모 (1994). 중용에세이: 마음 길 밝히는 지혜. 박영호 풀이. 서울: 성천문화재단.
- 소경희 (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39-59.
- 손민호 (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1-25.
- 이동임 외 (2003).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원목 (2005). 중용사상의 논리구조와 그 가치의 현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홍우 (2000a). 마음의 신비와 교육의 신비. 이홍우, 유한구. 마음과 교과 (pp.371-401). 서울: 성경제.
- 이홍우 (2000b). 전인교육론. 이홍우 외 2 인. 교육의 동양적 전통 II (pp. 47-79). 서울: 성경제.
- 주희(저). 김미영 옮김 (1999). 대학. 중용. 서울: 홍익출판사.
- 황금중 (2005). 성리학의 마음교육 이해와 현대 공교육에의 시사. 한국교육 32(3). 3-33.
- 한국교육개발원(2001, 2002, 2003).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 I, II, I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Buber, M., (저). 표재명 역(1990).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Canto-Sperber, M. & Dupuy, J. P. (2001). Competencies for the good life and the good society. In D. S. Rychen & L. 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228-231).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Carey, S. (Ed.). (1999).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n the European context*. London: United Kingdom National Office of Statistics.
- Kegan, R. (2001). Competencies as working epistemologies: Ways we want adults to know. In D.S. Rychen & L. 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192-204).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Kirsch, I. S. (2001).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Understanding what was measured.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Retrived May 27, 2007, from http://www.ets.org/all/Prose_and_Doc_framework.pdf

Perrenoud, P. (2001). The key to social fields: Competencies in lifelong learning. In D.S. Rychen, L. H. Salganik, & M. E. McLaughlin (Eds.), *Selected contributions to the 2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istical Office.

Rychen, D. & Slganik, L. (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Rychen, D. & Slganik, L.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Retrived May 27, 2007, from 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15/desecco/desecco_discpaper_jan15.pdf

Rychen, D. & S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